2006년 2월 27일, 한국오리협회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지금의 김만섭 회장이 당선돼 회장직을 수행해온 지도 벌써 35개월째를 넘어서 임기 막달에 이르렀다. 아이러니하게도 2006~2008년은 오리산업에 있어 생산과 소비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급격히 성장했던 최대 황금기와 AI 연중 발생으로 소비가 밑바닥을 헤매는 최대 불황기가 동시에 나타나 우리를 울게도 웃게도 만들던 시간이었다. 아직까지 지난해 발생한 AI의 여파와 함께 국내 경기 침체가 이어져 오리고기 소비는 종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국내 오리산업은 그 이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오리산업과 협회의 입지를 다지는 한편,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2009년부터 이어질 차기회장의 임기동안에는 더 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지는 희노애락이 극명히 엇갈렸던 지난 2006~2008년까지 3년간의 오리산업을 회고하면서 앞으로의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 월간 오리마을 편집부

2006~2008, 지난 3년간의 오리산업을 되짚어 본다.

⊙2006년, 눈부신 성장 그리고 AI 발생

1 개요(槪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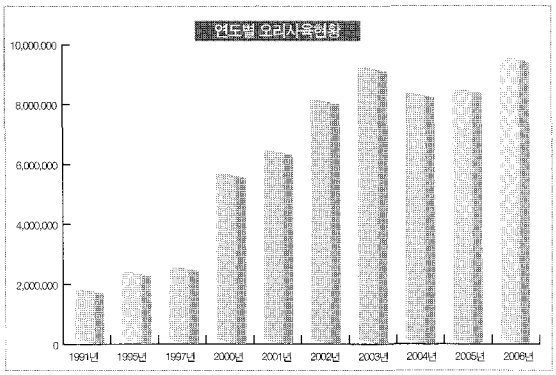
2006년의 오리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성장을 보였던 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육용오리 생산물량이 전년대비 약 30% 내외 증가된 상황에도 이러한 성장을 보인 점은 더욱 괄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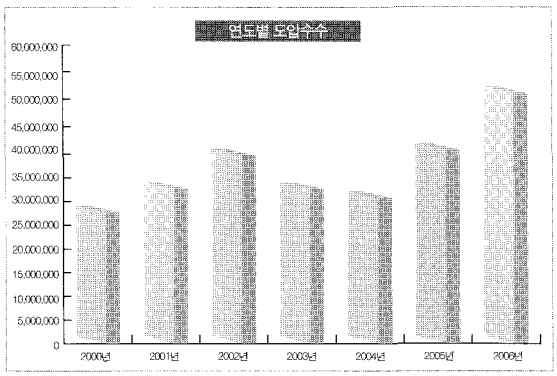
더욱이 오리고기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질적인 면에서도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 국내 오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며 실로 오리산업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한 해였다.

그러나 2006년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소비가 주춤하기 시작하였으나 연말 시즌과 겹쳐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오리 생산(生産) 및 소비동향(消費動向)

2006년은 2005년과 비교해 종오리 사육물량이 약 26%, 새끼오리 생산량 약 23%, 육용오리 약 30% 정도 상승하여 과잉입식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새끼오리 평균가격이 지난 5년 평균거래가 685원에 비해 약 65% 상승한 1,098원으로 나타났으





며 육용오리 또한 2005년 시장규모 1,741억원에서 508억원이 증가한 2,249억원으로, 각 분야에서 엄청난 호황기를 누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오리고

기 소비시장이 그와 비슷하게 증가하여 전체 육류시장에서의 오리고기 마케셔를 확대하는 한편, 재고물량 등의 문제 등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❸ 2006년 AI발생과 협회의 대처

그토록 우려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11월 22일, 전북 익산(2006년 11월 27일 2차)에서 발생되고 말았다. 첫 발생 이후 연달아 전북 김제(2006년 12월 10일 3차)와 충남 아산(2006년 12월 11일 4차)까지 총 4회에 걸쳐 발생한 AI는 2003년의 악몽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으며 특히 충남 아산과 천안 발생 건은 협회 회원 농장에서 발생하여 한층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AI 발생으로 본회는 긴급히 AI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비하였으며, 상황실에서는 전국 종오리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일일 전화예찰, 민원접수, 요식업소와 오리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일 소비 및 판매실적 조사를 실시, 발빠른 방역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살처분 조치를 위해 정부에서 요구하였던 종오리, 육용오리 등의 시세 보고, 적절한 살처분 보상 단가(일령 및 주령별 사육단가 등) 등의 자료를 충실히 보고하였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발이 묶인 농가들의 오리에 대해 정부 수매를 요청하고, AI 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정부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항 협조, AI 감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국내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AI로 인하여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❹ 2006년 협회 주요사업추진 실적

① 협회 사무실 이전 (방화동 ◎ 제2축산회관)

- 본회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1동의 제2축산회관 5층으로 이전, 각 축산단체들과 보다 긴밀하게 업무를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오리마을지, 격월 발행에서 월간 발행으로 전환

- 그간 격월로 발행되던 오리마을지를 「월간 오리마을」로 전환, 매월 발 빠른 오리업계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국내 최초의 월간 오리전문지로서 더욱 의미가 깊다.

③ 대대적인 업무시스템 정비

- 2006년은 협회 사무실 이전과 함께 새로이 인력을 충원, 대대적인 업무 재편성을 단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종 규정을 제정 · 시행함으로써 협회 구조를 재정립, 각종 정책 건의, 통계자료 구축, 협회 서비스 강화 등 대내외적인 업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④ 협회 홈페이지 개설

- 그간 여러 가지 제반사정상 개설하지 못했던 협회 홈페이지를 새로이 제작, 각종 오리 통계 및 오리관련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⑤ 농정활동 및 관련단체 활동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수의과학검역원, 가축질병방역본부, 농협중앙회, 농민단체연합회, 축산단체협의회, 언론사 등과 업무협조 및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빠른 정보로 협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종오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GPS 사업 추진

- 종오리 육종 · 수출 전문업체인 영국 체리밸리사 및 프랑스 그리므드사에 AI 등 전염성 질병 발생으로 수출이 금지될 경우 국내 종오리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종오리 공급을 위하여 한국종오리사업추진위원회가 최초로 구성 · 운영되었다. 한국종오리사업추진위원회는 후일 KGPS(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의 모태로, 원종오리 도입 사업의 시초가 되었다.

⊙2007년, 오리산업의 안정기

1 개요(槪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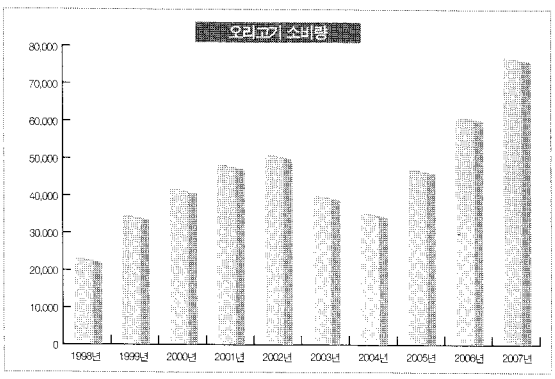
2007년 3월까지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남 천안과 경기 안성에서 계속 발생,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점차 중부지역으로 상륙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양산하기도 했지만 7차 발생(천안 동면, 2007년 3월 6일)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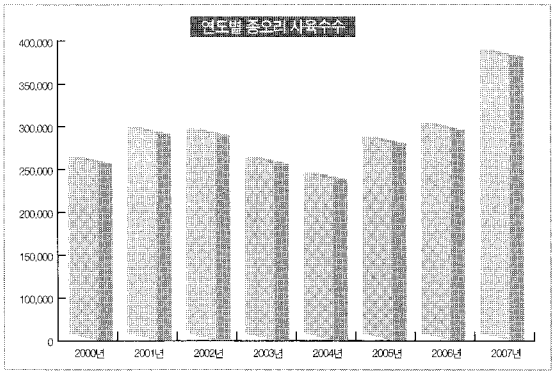
2007년 8월에는 국내 오리도축장의 잔모처리용 왁스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대대적 보도로 인해 국내 오리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불미스런 사건들이 오리고기 소비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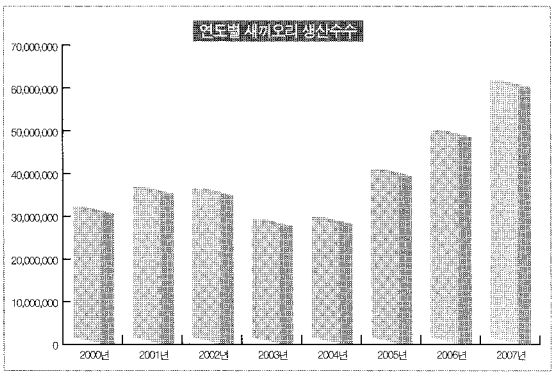
한편, 지난해가 제2축산회관으로 협회가 이전하면서 기존의 내부체제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했던 해였다면 2007년은 첫 오리자조금 시행과 위원회 발족, KGPS(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 설립, 오리도축장에 대한 HACCP 인증제도 시행 등 굵직한 대외사업이 시작된 중요한 해이기도 하였다.

2 오리 생산(生産) 및 소비동향(消費動向)

2007년에는 2006년까지 지속된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종오리 생산량이 약 20%, 육용오리 생산량이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물량 증가에 기인한 냉동비축 물량 증가, 저가판매 등으로 인해 가







격은 12% 가량 하락하여 거래되었다. 이처럼 가격은 하락하였지만 생산물량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생산액에 있어 약간의 성장폭을 보였다.

오리고기 소비시장은 지난해 대비 약 20% 신장된 성장률을 보인 것은 가정내 소비와 대형 오리요리 프랜차이즈 업체로 인해 요식업 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3 2006년부터 이어진 AI의 발생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충남 천안(2007년 1월 19일, 2007년 3월 8일)과 경기 안성(2007년 2월 9일)에서 AI가 발생하면서 AI가 호남지역에서 중부지역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본회에서도 이와 발맞춰 회원들에게 더욱 철저한 방역 및 소독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종오리 농장 예찰업무에 힘썼다.

또한 오리 살처분 시 보상가가 당시 거래가격에 합당하지 않아 정부에 적정 보상가 적용을 끊임없이 건의하여 적정한 살처분 보상가를 책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7년 3월 8일 충남 천안의 양계농가 발생을 끝으로 AI가 종결되었는데 소비자들이 200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관련 지식이 상당수준에 이르렀고 큰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아 오리고기 소비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발생이전 대비 약 23% 하락에 그침) AI 종결 이후 3월부터는 소비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하였다.

4 2007년 협회 주요사업추진 실적

① 오리고기 우수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송혁 박사팀은 2007년 11월 2일 '오리육 우수 영양성분 분석 및 성인의 오리육 섭취가 성인병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오리고기 우수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건국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같은 양의 오리고기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체성분 변화를 나타낸 실험으로, 해독능력 등에 대한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성과를 보였다.

② 오리산업 발전 및 동절기 AI 등 질병예방 교육

- 2007년 11월 7일, 본회 회원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AI 등 질병예방 교육과 오리산업 정책, 오리 소비구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참여자에게는 이수증을 교부하였다.

③ 우리농축산물소비촉진행사 참여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축산물 자조금단체 공동주최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농축산물소비촉진행사에 본회도 참여하여 오리고기 시식 및 판매행사로 소비촉진을 도모하였다.

④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시 현행대로 오리 전염성 간염에 대해서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유지토록 건의

- 법령개정 의견 제출 (3종 전염병으로 조정계획을 현행유지토록 함)

⑤ 오리표준축사 모델개발보급 건의

- 오리의 경우 표준축사모델이 없어 정부 지원이나 보상문제 등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친환경축사 표준모델 개발시 육계사 표준모델에 오리도 함께 포함시켜 표준 모델을 개발토록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끊임없이 건의하여 확정 추진

⑥ 종자오리 비교시험 연구사업 추진

- 국내 수입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종오리의 사육데이터가 부재한 관계로 축산과학원 가금과에 의뢰하여 영국 체리밸리사, 프랑스 그리모드사 종오리를 각각 300마리씩 지원받아 비교 시험사육 연구

⑦ 친환경축산정책시행관련 건의

- 전체 축산업 중 오리산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타 축종에 비해 연구지원 등이 미흡하므로 각종 정책수립 시행시 오리를 꼭 포함시키도록 건의

⑧ 종오리등록제 시행에 대한 오리업계 합의 의견제출 및 관련법령 개정요구

- 지금까지 종축업이 소, 돼지, 닭에 국한되어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나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종축업에 종오리를 포함할 것을 건의하였다. 2008년 준비 및 예고기간 거친 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건의

⑨ 농가지원 면세유류에 대한 오리업 지원기준(조견표) 고시 개정요구

- 오리 사육밀도가 닭의 4배에 달하나 현재 면세유류 지급시 양계용 조견표를 적용하는 관계로 필요량의 1/4만 공급받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오리용 별도 용량지급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⑩ 오리 전염성 간염백신 개발요구 (수의개발과학검역원에서 개발 완료)

- 오리의 주요질병에 대한 피해를 절감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간염백신에 대한 개발을 건의하였다. 현재 새끼오리에 백신 접종 (종오리에 백신 접종 면역항체이용 방법)

⑪ AI 예찰을 위한 혈청검사 대신 종란검사 대체방법 개발 요구 추진

- 종오리 채혈검사시 스트레스로 인한 산란율 저하가 초래돼 종오리농가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 혈청검사가 아닌 종란, 분변검사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였다. 채혈 혈청검사 방법 ◎ 종란, 분변을 이용한 검사방법으로 대체

⑫ 오리 패혈증 백신개발 보급 연구

- 2007년 현재 실험연구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농장 실증실험을 추진중에 있어 2008년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⑬ 차기 정부(이명박 정부)에 오리업계 현안사항 및 지원요구사항 자료 제출

-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오리업계 현안사항 설명자료와 함께 정책적 미진 사항 및 오리업계 건의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⑭ AI 방역대책 및 발생시 살처분 보상기준(농림부 고시) 개정 건의

- 종오리 가격 및 사양관리비 상승 등 현실 감안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 종오리 보상가격, 육용오리 보상 기준의 현실화 요구
- 종오리와 F1과의 차등, 육용오리의 경우 사육단계별 무항생제 오리, 특정브랜드 오리 등에 대하여 현실반영 요구

⑮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

- 본회는 한국마사회에 축산회관 차입금 무이자 대체자금 320백만원과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비 20백만원을 특별적립금으로 지원받는데 성공하였다.

⑯ 오리자조금 사업 추진

- 오리산업 종사자 총 106명이 각출한 자조금 5천만원과 정부지원금 5천만원을 더한 1억원으로 오리자조금 새로이 시작
- 소비홍보사업으로 라디오 광고 및 지하철 지면광고, 소비촉진 시식 및 판매행사, 오리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책자 발간 등 다양한 각도의 홍보사업 시도

⊙2008년, 오리산업 최대의 위기, 그리고 극복

1 개요(槪要)

2008년은 오리업계에 있어 최대 고난과 역경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렸던 한 해로 호황이었던 지난해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치솟는 사료값과 기름값, 때 아닌 AI의 무차별 발생과 언론보도, AI 인체감염설 횡행, 영국 AI 발생으로 인한 종오리 수입금지조치, 화물대란으로 사료공급 차질, 심각한 경기침체, 고환율 등 곳곳에 도사린 악재들은 오리고기 소비를 계속해서 바닥으로 끌고 내려왔다. 그러나 비바람 속에서도 꽃이 피듯, 오리산업에도 즐거운 소식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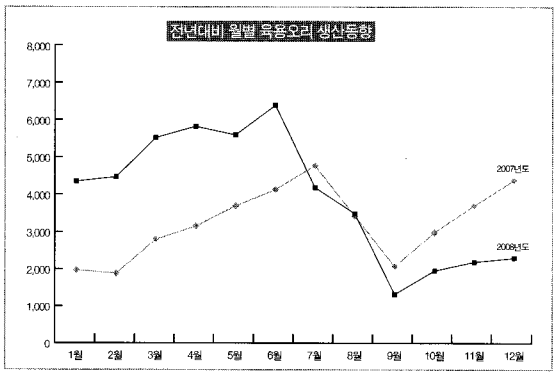
처음으로 오리고기를 군납메뉴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에 오리 농가

당 지원한도가 수당 기존 65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오리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오리 표준축사 설계도(標準畜舍設計圖)가 완성돼 정책수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종오리업이 축산업 등록 대상에 포함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며, 면세유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계업 대비 2배 공급량을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몇 년간 준비해 온 종오리데이터베이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체계적인 국내 종오리 파악과 관리가 실현 가능케 되었다.

한편, 오리고기 소비가 AI 발생 이전과 같이 원상복구 되지는 않았으나 자조금을 통한 계속적인 소비홍보 광고와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에 힘입어 상당부분을 회복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❷ 오리 생산(生産) 및 소비동향(消費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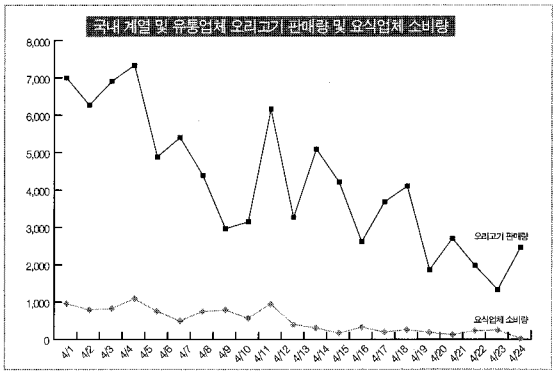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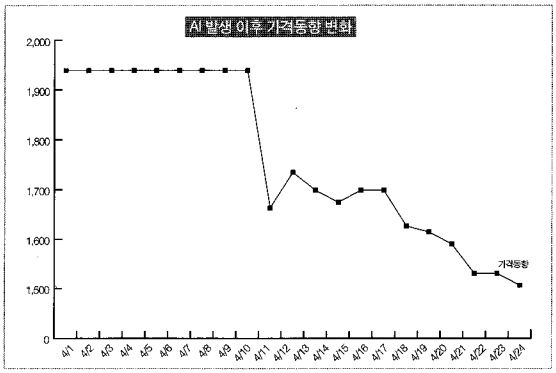
2008년 상반기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종오리 및 육용오리 생산량이 하반기를 기점으로 큰 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4월 발생한 AI가 장기화됨에 따른 소비급락과 경기 악화가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난 몇 년간의 호황에 사육물량이 증가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오리고기 소비시장은 1/4분기까지는 전년 동기와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AI 발생시점인 4월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 하반기에는 발생 이전 대비 약 70%까지 소비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AI 장기화에 따른 소비급락과 경기악화로 인한 오리고기 외식업소의 감소, 소비기반 약화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용오리의 경우 AI 발생 이전인 1/4분기를 제외하고는 2008년 내내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돼 업계에 심각한 경영난을 야기하였다.

❸ 최악의 AI 무차별 발생, 오리업계를 위협하다.





AI는 동절기에만 발생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난 2008년 4월, 전북 김제에서 AI가 발생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계절의 AI 발생에 정부와 관련 단체 및 업계에서도 당황하였지만 곧 비상체제로 돌입하였다. 발생초기, 정부와 업계에서는 지난 2006~2007년 AI 발생을 경험한 터라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4월 3일 첫 발생을 시작으로 5월 12일까지 총 33개 농장에서 연쇄발생, 재래시장과 가든 형태 식당에서의 AI 발생, 이동제한 미흡으로 인한 AI 바이러스

전파, AI 인체감염설 관련 유언비어 난무, 모 상병의 AI 감염 의심 사례 발견, 서울 AI 발생,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 등의 연속적인 사건들은 이미 가금산업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크나큰 타격을 안겨주었고, 이와 함께 경기침체가 맞물려 아직까지 오리산업은 정상적인 소비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본회는 정부의 AI 방역조치의 보조자로서 AI 발생농장 살처분 현장 참여, 적합한 살처분 보상가 책정 협조, 계열 및 일반수매 업무, 일일 AI 예찰, 종오리 및 종란 도태사업, 경영 · 생계 · 소득안정자금 사업, 관련 민원접수 등 실질적으로 오리업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얘기치 못한 AI 발생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동절기 방역체계를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 사전전화예찰 및 분변검사, 불법도축 금지 등을 실시하여 AI 발생을 미연에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

4 2008년 협회 주요사업추진 실적

① 그리므드사 종오리 관련 사양관리 세미나 및 사양관리 지도(2008년 2월 13일~19일 : 프랑스 그리므드사 관계자 방한)

- 그리므드사 종오리 육종사업의 로렌트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그리므드사 종오리를 수입하고 있는 회원사를 순회하며 사양관리를 지도하였다.

② AI관련 항의 집회(질병관리본부의 과잉. 왜곡 보도 등)

- 2008년 5월 16일, 본회와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도종닭협회 등 가금단체 회원 800여명이 AI의 위험성을 과대보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개최하였다.

③ 오리고기의 안전성 및 우수성과 소비홍보

- 2008년 5월 26일, 민주당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샵 행사에서 오리고기 요리전시와 시식행사를 개최, 대외적인 홍보에 앞장섰다.

④ 충북한우사랑축제서 오리고기 소비홍보행사

- 2008년 5월 31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한우사랑축제에서 오리고기 시식회를 개최, 한우행사보다 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⑤ KBS 「6시내고향」 생방송 오리고기 소비홍보행사

- AI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가금사육농가의 시름을 덜고자 KBS 1TV 「6시 내고향」에서는 6월 5일 생방송으로 AI 극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회는 전북대학교 후문 광장에서 훈제오리고기와 오리알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AI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하였다.

⑥ 오리고기 소비홍보 지하철(서울3호선) 방송 「행복한 정보」광고

- AI로 침체된 오리고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본회는 서울 3호선 라인에 방송되는 지하철 방송 「행복한 정보」와 함께 브랜드 오리고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작, 8월 한달간 방영하여 국내 브랜드 오리고기를 더 널리 홍보하였다.

⑦ 종자오리 데이터베이스교육 및 AI 예방대책교육

-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둔 2008년 8월 27일, 해당 종오리 농가들을 한데 소집한 가운데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교육 및 AI 예방대책교육을 실시하였다.

⑧ 오리고기 우수성 및 소비홍보(대학생 대상)

- 한경대학교 추계 축제가 개최된 지난 2008년 10월 2일, 본회는 대학생들에게 오리고기 영양과 맛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시식행사를 개최하였다.

⑨ 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및 전 직원 비상근무

• AI 발생 및 확산에 따라 본회는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구성 · 운영하며 비상근무체재 하에 살처분 현장 지원, 언론보도 통제, 농림수산식품부 AI 업무 지원 등 보다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⑩ 오리고기 소비홍보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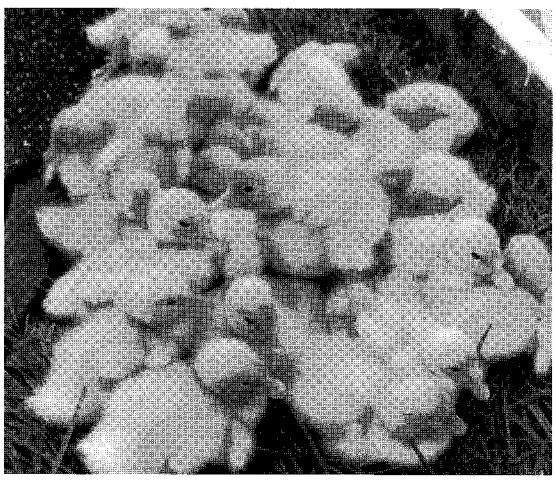
• 본회는 2008년 1월 1일~6월 31일까지 6개월간 본회 회원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휴대폰 비즈링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였다.

⑪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 승인에 따른 사업추진

• 2008년 데이터베이스 사업추진예산을 170백만원 확보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개발 업체(애니인포넷)과 계약을 성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데이터 입력을 위해 필요한 전국 121개 종오리 농장 및 부화장 현지 조사를 마친 상태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⑫ 종축업에 "종오리" 포함 축산법령 개정 시행

• 종축업 대상에 '종오리'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종오리 등록제 시행과 단속은 2009년 6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오리사육업 등록 요건 또한 현행 300㎡에서 50㎡ 초과시로 변경되었다.

⑬ 살처분 보상기준 개정 건의

• 농림수산식품부에 살처분 보상기준 개정안을 건의, 이를 반영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⑭ AI 발생에 따른 종오리 도태 및 육용오리 수매 건의 · 시행

• 20만마리의 종오리와 28만개의 종란, 530만마리의 육용오리를 수매하였다.

⑮ 육용오리 군납 건의(2008년 2월 20일) ◎ 시행

• 지난해부터 건의해 온 육용오리 군납 문제도 2008년 8월 1일부터 군 급식품목에 오리고기를 포함하여 군납시행토록 결정되어 1인당 월 135g(연간 약 780톤)이 소비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급식량을 늘려 1인당 월 150g을 공급 예정이다.

⑯ 친환경 축사 표준모델 개발 보급건의 ◎ 시행 중

• 친환경 축사 표준모델 개발에 대해 2007년 10월에 공식 건의하였으며 2008년 2월 정책에 반영돼 12월 12일 국토해양부 고시로 제정 공포되었다.

⑰ 사료구입자금 지원기준 확대 건의 ◎ 시행 중

• 사료구입자금이 마리당 650원으로 터무니 없이 적게 책정되어 본회가 이같은 사항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건의, 일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 3,000원으로 확대하는 데 성공하였다.

⑱ 2009년 정부지원사업(예산) 건의 ◎ 반영

• 본회는 2009년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교육사업비 30백만원, 자조금 100백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⑲ 오리 전염성 간염백신 및 패혈증 백신 개발건의

- 오리 간염백신은 2008년부터 계속 건의해 온 사항으로 거의 개발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곧 상용화될 예정이라 하였다.

⑳ 오리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검토중)

- 오리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대책 24개 과제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농식품부는 현재 이를 적극 검토중이다.

㉑ 오리털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품목 확정

- 오리털 수출에 대한 물류비를 2008년 2월부터 정부에 건의해왔으며 2008년 10월 지원대상품목으로 확정돼 11월 수출분부터 kg당 34원을 물류비로 지원받는데 성공하였다.

㉒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 개정건의 · 시행

- 오리에 적용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이 오리와는 맞지 않는 닭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농식품부에 건의, 2008년 4월부터 오리의 면세유 공급기준을 닭의 2배로 산정하여 시행하였다.

㉓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제정 시행

- 오리의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이 지난 2008년 12월 1일자로 산란용 오리 1마리당 0.333㎡, 육용오리 1마리당 0.246㎡으로 시행되었다.

⊙아직 못 다한 과제(課題)

2006~2008년, 3년간 여러 시련은 있었지만 오리협회는 물론 산업 자체의 몸집도 커졌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나큰 성장을 일궈냈다.

종오리 데이터베이스사업이나, 임의자조금, 종오리등록제, 오리고기 군납 등 몇 년 전부터 업계가 숙원해 오던 사업이었고 최근 그 염원을 하나씩 실현해 나아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협회 내 · 외부의 체계와 질서가 확립되었고 전보다 커진 산업은 우리가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오리산업이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아직 외식업소에서의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오리고기 브랜드 육성사업, 오리고기 수출육성사업, 연구인력 확대 및 통계조사 사업 등 미진한 과제는 아직도 산재해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오리산업이 AI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듯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은 업계 종사자 하나하나의 손에 쥐어져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오리산업을 이끌어 온 제8대 임원단에게 감사의 박수를,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한국오리협회 임원단에게 잘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할 때이다.